

# 강진문화관광재단, AI 융합 캠프 운영...“체류형 인구 확보”

도청청소년수련원 협약...문화·복지 ‘쌍끌이’  
통합형 문화 수련 활동...2박3일 지원  
배리어프리 오디오북 등 재능기부 봉사

강진문화관광재단이 전남도청소년수련원과 손잡고 첨단 음악·AI 인프라를 융합한 미래형 청소년 캠프를 전격 가동한다. 21일 강진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 성장 지원 및 로컬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수련원이 추진하는 미래 진로 탐

색 기조에 강진 전남음악창작소의 고도화된 전문 인프라를 결합해, 도내 청소년들을 미래형 창작자이자 사회공헌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사업으로 도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한 ‘통합형 복합 문화 수련활동’을 체계화한다. 지리적 여건 탓에 첨단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을 강진으로 초청해 인공지능 음악 제작, 국악 리듬 체험, 전문 스튜디오 녹음 등 고급 질 진로 교육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는 재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관계인구 확대 정책과 궤이한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타 지역 청소년과 가족들이 2박3일간 강진에 머물며 다채로운 문화 자원을 깊이 있게 경험하도록



유도해, 이들을 지속 가능한 잠재적 재방문객으로 자산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수련원의 고유 미션인 찾아가는 활동에 재단의 미디어 창작 역량을 접목해 실질적인 문화복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소리로 그린 동화’ 시각장애인 오디오북 프로젝트를 정례화된 사회공헌 플랫폼으로 대폭 확장할 방침이다. 참여 청소년들은 전문 성우와 엔지니어의 지도 아래 자작곡 음원과 오디오북, 배리어프리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나선다. 완성된 결과물은 도내 복지기관과 시각장애인 시설에 순차적으로 보급돼, 청소년들의 진로 포트폴리오 구축은 물론 차별화된 ESG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이밖에 두 기관은 청소년 공동체 활동과 연계한 특화 캠프를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하고, 전문 직업 특강 등 실질적인 체험 패키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소외 없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기태 대표이사는 “전문 인프라를 청소년 성장과 보편적 문화복지 영역으로 확장하는 획기적인 분기점”이라며 “첨단 기술과 로컬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체류형 캠프를 통해 강진의 든든한 관계인구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준복 전남도청소년수련원장은 “농·산·어촌 학교 지원과 찾아가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확대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일류 청소년 수련 시설로 굳건히 도약하겠다”고 회답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해남군, 지역 4개 의료단체 통합돌봄 ‘맞손’

의사회·약사회·한의학회 등 MOU

해남군이 관내 의료단체들과 손잡고 의료 현장에서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해남 통합돌봄’ 체계를 전격 가동한다.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해남군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4개 의료단체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가 부족해 복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병·의원과 약국에서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의료기관의 세심한 관찰력을 적극 활용해 행정력보다 한발 빠르게 위기 징후를 포착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의사와 약사는 진료 과정에서 가족 돌봄 부재나 영양 부실, 다제약물 복용 등이



의심되는 환자를 관찰하고 군 전담 부서에 즉각 알린다. 군은 전달된 위기 신호를 놓치지 않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연계해, 단 한 명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완성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주민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료인들이 통합돌봄에 동참해 주어 무척 든든하다”며 “빈틈없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영광군, 고온기 시설원에 농가 기술 지원 ‘총력’

내달까지 ‘영농 지원의 날’ 가동  
작물 생산·병해충 방제 등 지도

영광군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이상 기후와 고온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설원에 농가 기술 지원에 현장 밀착형 기술 지원을 전폭 강화한다. 21일 영광군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매주 화요일을 ‘영농 현장 기술지원의 날’로 정하고 총 8개팀 38명으로 구성된 전문 기술지원반을 편성해 농가 애로사항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군은 염산면 신성리 일원의 시설원에 농가를 직접 방문해 시설 복수야, 망고, 파프리카 등 주요 작물의 재배 현황을 점검하고 고온기 생육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지도를 펼쳤다. 특히 군의 지역 특화 품목인 시설 복숭아는 지난 2020년부터 육성해 현재 염산면을 중심으로 12농가 72ha 규모로 재배 중이다. 지난 10일 첫 수확을 시작해 다음 달 10일까지



무리를 앞두고 있어 수확기 품질관리와 하우스 내 온·습도 조절, 병해 예방 기술을 집중 지도했다. 아울러 아열대 작물인 망고 재배 농가에는 안정적인 과일 맺힘과 당도 향상을 위한 환경 관리 기술을 전수했으며, 파프리카 농가에는 여름철 고온기 생육 저하 예방을 위한 양액 관리와 작형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앞으로도 시기별·단계별 영농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한편, 현장에서 수렴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적인 사후 기술 지원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번기에는 현장 대응 속도와 재배 관리 수준이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을 더욱 확대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함평 석두마을, 해수부 어촌체험 고도화 사업 ‘선정’

郡, 국비 등 총 8억원 투입 명소 탈바꿈

함평군이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을 대폭 개선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인다. 21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공모에 함평읍 석두마을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어촌 휴양 시설을 개선해 침체된 관광을 활성화하고, 방문객 유입을 늘려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8억원을 집중 투입, 오는 2027년까지 석두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휴양 인프라를 전면 세단장할 계획이다. /함평=기영규 기자

핵심 사업으로 최신 모터숙박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고 기존 카라반 시설을 쾌적하게 꾸미며, 넓은 관리동을 맑고 보수를 방문객 편의성을 한층 높인다. 군은 체류형 인프라 확충을 통해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가족 단위 나들이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민 소득 증대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차별화된 해양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석두마을을 언제든 다시 찾고 싶은 서남권대표어촌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구상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협력해 석두어촌체험휴양마을이 함평을 상징하는 체류형 해양관광 명소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영산강 들섬과 둔치 일원에 조성된 약 16만㎡ 규모 꽃양귀비 단지가 붉은 꽃물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사진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봄 정취를 즐기는 모습. (나주시 제공)

## 나주 영산강변 꽃양귀비 힐링 명소 장관

郡, ‘영산포 흥어·한우축제’ 연계 기대

나주 영산강 들섬과 둔치 일원에 대규모로 조성된 꽃양귀비 단지가 절정을 맞으며 상춘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영산강 들섬 일대 약 16만㎡(4만8천평) 규모로 조성한 꽃양귀비 단지가 최근 화사하게 만개해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곳에는 붉은색을 비롯해 분홍색, 흰색, 그리고 옅게 처음 선보인 노란 꽃양귀비가 안개꽃과 화려하게 어우러져 다채로운 봄 풍경을 선사한다. 시는 방문객들이 꽃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발 사이로 산책로인 ‘그린로드’를 조성하고, 곳곳에 포토존과 조망형 목재 데크, 파라솔 등

을 확충해 힐링 공간으로 꾸몄다. 무엇보다 22일 막을 올리는 ‘제22회 영산포 흥어·한우축제’와 맞물리면서, 지역의 대표 미식 축제와 꽃구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봄 나들이 코스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동을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영산강 꽃양귀비 만개하며 일반 관광객은 물론 사진작가들의 출사 명소로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며 “잘 갖춰진 휴식 공간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봄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정찬환 기자

## 호남권생물자원관, 식품 산업화·환경 교육 강화

식품연구원·전남온라인학교 MOU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최근 식품 산업화와 미래 세대 환경 교육 강화를 위해 한국식품연구원, 전남온라인학교와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도서·연안 생물자원의 활용폭을 대폭 넓힌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먼저 한국식품연구원은 야생생물 소재의 가능성 발굴부터 상용화 연계까지 전 과정에 걸친 긴밀한 협력망을 구축한다. 자원관의 독보적인 생물자원 인프라와 연구원의 고도화된 식품 가공 기술을 결합, 고부가 가치 가능성 식품 개발에 궤이한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이어 전남온라인학교와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 분야 고교학점제 공동 교육과정을 전폭 지원한다. 풍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생물자원의 가치를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도록 돕는다. 박진영 관장은 “도서·연안 생물자원의 무한한 가능성을 식품 산업으로 확장하고 맞춤형 생태 교육을 실현할 획기적인 분기점”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생물 산업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영암도기박물관 ‘백제 문양전’ 특별전 개최

오는 8월2일까지 8점 공개

영암군은 21일 “영암도기박물관은 전일부터 오는 8월2일까지 특별전 ‘국보순회전,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보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하고 국립나주박물

관과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백제 명품, 백제 문양전’을 주제로 백제 용무늬 벽돌 등 문양 벽돌 8점을 전격 공개한다. 특히 전시 유물 가운데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유산도 포함되어 있어, 백제인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훌륭한 미감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진귀한 유물을 실물로 관람할 수 있어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다음 달 6-7일에는 박물관 일원에서 마술쇼와 현악 공연, 백제 OX 퀴즈 등 다채로운 연계 행사도 펼쳐진다. 김철 문화예술과장은 “우수한 문화유산을 지역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전시”라며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박물관을 찾아 백제 문화의 정경한 아름다움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